

# 관광관련 정부정책

---

제842호 (2022년 12월 셋째 주) 정책정보센터 Tour.go.kr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과 일본, 힘 합쳐 관광교류 회복 앞당긴다 .....	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과 태국, '2023~2024 상호방문의 해' 체결로 관광 협력 강화 .....	4
[해양수산부] 어촌관광 성과확산의 장 '제15회 어촌마을 전진대회' 개최 .....	5
[문화체육관광부] 꼭 방문해야 할 한국관광지 100곳을 한눈에 .....	6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방문의 해 계기, 정부·지자체·관광업계 모두 외국인 손님맞이 준비한다 ....	8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케이컬처)로 도약하는 관광매력국가'에 항공업계도 함께 .....	9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 '한국문화(케이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	10
[해양수산부] 어촌관광 성과확산의 장 '제15회 어촌마을 전진대회' 개최 .....	16
[부산광역시] 셰프 에드워드권, 부산 미식관광 홍보대사로 위촉 .....	17
[서울특별시] 서울 관광을 빛낸 주인공들 한자리에... '2022 서울관광인의 날' 개최 .....	18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과 일본, 힘 합쳐 관광교류 회복 앞당긴다

- 12. 16.~17. 부산에서 '제36회 한일관광진흥협의회' 개최, 코로나 이후 첫 대면 행사로 진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일본 국토교통성(대신 사이토 데쓰오)은 12월 16일(금)부터 17일(토)까지 부산에서 '제36회 한일관광진흥협의회'를 열고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 '한일관광진흥협의회'는 1986년에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교차로 열리며 양국의 우호 증진에 기여해왔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온라인 방식으로 지속 개최하며 관광교류와 관광산업 회복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바 있다. 특히 지난 6월, 2년 3개월 만에 양국의 수도를 연결하는 김포-하네다 항공노선이 열리고 10월에는 양방향 무사증 관광이 복원, 11월에는 부산-후쿠오카 여객 노선이 재개되어 양국 여행길이 정상화되어가는 가운데 코로나 확산 이후 처음으로 양국 관계자가 직접 만나 관광교류 조기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 일본 관광 관계자 50명 부산 찾아, 12. 16. '한일 관광교류의 밤', 12. 17. 본회의 진행

□ 먼저 12월 16일(금)에는 양국 관광교류 재개를 축하하는 '한일 관광교류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17일(토)에는 '제36회 한일관광진흥협의회' 본회의를 이어간다. 이번 행사에 우리나라에서는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을 대표로 정부와 관광공사, 관광업계, 학계, 지자체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다. 일본에서는 일본 국토교통성 관광청 호시노 미쓰아키 국제관광부장을 대표로 일본여행업협회(JATA)의 시무라 타다시 이사장과 전국여행업협회(ANTA) 곤도 코지 부회장, 여행사 '잘팍'의 니시오 다다오 회장 등 여행·항공·교통 분야를 포함해 참가자 약 50명이 부산을 찾는다. 협의회에서는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일 관광교류 구축 방안, ▲ 한일 지방 관광의 복원 및 교류 활성화, ▲ 미래세대(청소년·청년)의 교류 활성화, ▲ 관광산업 혁신기반 강화 협력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이후 관광정책 공유, 지방 관광 복원과 활성화 위한 협력 모색

□ 한국 정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지난 12월 12일(월)에 발표한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소개한다. 이번 계획은 우리나라가 한국문화(케이컬처)를 중심으로 관광매력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세운 중장기 관광정책이다. 그중 '2023~2024 한국방문의 해'와 도쿄 등 세계 50개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케이-관광 로드쇼' 계획을 일본 여행업계에 알려 일본인 방한 관광 본격 유치를 위한 협력을 촉구한다. 일본 관광청과 양국 지자체, 관광공사(KTO/JNTO), 여행업협회(KATA/JATA)에서도 관광 재

개 대응 현황과 함께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이후 기조 강연에서는 ‘지방 관광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양국의 관광교류가 전국의 다양한 지역을 기반으로 균형 있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경남대학교 고계성 교수, 숙박 서비스 플랫폼 ‘미스터멘션’의 정성준 대표, 일본 관광기업 ‘이센’의 이구치 도모히로 대표이사, ‘밸류매니지먼트’의 마쓰오 료스케 부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코로나 이전 양국 여행객은 상호 외국인 관광 시장에서 약 18% 정도를 차지했고, 양국 관광교류 재개는 코로나19로 긴 침체를 겪은 국제관광 시장 정상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특히 2023년은 일본에서 한류 열풍이 일어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한국문화(케이컬처)를 매개로 다양한 지역에서 관광교류가 조기 회복될 수 있도록 양국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044-203-2832) | 게시일 : 2022.12.16.)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과 태국, ‘2023~2024 상호방문의 해’ 체결로 관광 협력 강화

- 동남아 한국문화(케이컬처) 열기를 관광 수요로 전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태국 관광체육부(장관 피팟 랏차깃쁘라 칸)는 12월 13일(화), 동남아 국가 중 최초로 ‘2023~2024 한국-태국 상호방문의 해’를 포함한 관광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서면으로 체결했다.

□ 문체부는 2023년에 한국과 태국이 수교 65주년을 맞이하는 것을 계기로 동남아 최대 한국방문 시장인 태국(’19년 57만 명)과 함께 2023년~2024년을 ‘상호방문의 해’로 지정하고자 지난 5월부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동남아 지역 관광객에 대한 더욱 공세적인 유치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 양국은 양해각서에 따라 앞으로 2년간 ▲ ‘상호방문의 해’ 계기 대형 관광 교류 행사 개최, ▲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양국 관광 목적지 홍보, ▲ 관광 분야 종사자 역량 강화, ▲ 관광 연계 문화·예술·체육 행사 장려 등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 12. 15. 태국 현지에서 ‘한국 관광의 밤’ 개최

□ 그 첫 번째 결실로, 12월 15일(목) 태국 현지에서는 ‘한국 관광의 밤(Korea Night)’이 열린다. 양국 언론인과 관광업계 종사자 등 13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에이핑크(Apink) 정은지 씨를 ‘한-태 상호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한국 관광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태국은 동남아 한류 전진기지로 불릴 만큼 한국에 열광하고 있는 나라이다.”라며, “동남아 국가와는 최초로 추진한 ‘2023~2024 한-태 상호방문의 해’ 지정을 계기로 관광과 한국문화(케이컬처)의 매력적인 융합을 통해 한국문화(케이컬처)의 본국인 한국이 국제관광수요를 조기에 선점하겠다.”라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어촌관광 성과확산의 장 '제15회 어촌마을 전진대회' 개최

- 12.15.~16. 경남 거제에서 성공사례 발표 및 성과 공유, 시상식 등 진행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은 12월 15일(목)부터 16일(금)까지 경상남도 거제시 소노캄 거제에서 '제15회 어촌마을 전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어촌마을 전진대회'는 어촌주민이 직접 어촌체험휴양마을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더불어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어촌정책 성과와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다.
- 올해 전진대회는 전국 124개 어촌체험휴양마을 어촌계장과 사무장, 바다해설사, 정부·지자체 담당자 등 어촌관광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하며, △어촌정책 우수사례 시상, △어촌체험휴양마을 성공사례 발표, △어촌관광 전문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 먼저 '어촌정책 우수사례 시상'에서는 '22년 일등어촌으로 선정된 경남 남해 이어마을을 비롯한 4개 마을에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또한, 현장에서 어촌의 매력을 관광객에게 알린 바다해설사 2명과 어촌체험휴양마을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사무장 2명,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제시로 어촌관광 발전에 기여한 청년과 전문가 등 민간부문 3명에 대한 시상도 이뤄진다.
- 이어서, '어촌체험휴양마을 성공사례 발표'에서는 우수마을 운영성과와 어촌체험휴양마을 내 특화시설 조성 추진사례, 도어교류 우수사례 등 어촌관광 관계자의 관심이 높은 주요 성과를 공유하며 어촌관광의 활력을 도모한다.
- 아울러, 행사에서는 올해 9월 제12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거제 송어 망쟁이 들망어업'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되며, 어촌관광 발전을 위한 관계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유·무형의 어업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어업유산으로 2015년부터 지정·관리

- 김원중 어촌어항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불황 등 힘든 시기임에도 어촌 발전을 위해 힘 내준 마을 운영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 말씀드리며, 이와 같은 우수사례가 계속해서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공과(044-200-5651) | 게시일 : 2022.12.14.)

## [문화체육관광부] 꼭 방문해야 할 한국관광지 100곳을 한눈에

- '2023~2024 한국관광 100선' 발표, 6회 연속 14개소, 최초 33개소 등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로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한국관광 100선'은 우리 국민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한국의 대표 관광지를 2년에 한 번씩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다.

□ 이번 '한국관광 100선'으로는 유적지, 건축물, 유원시설 등의 문화 관광자원 61개소, 숲, 바다, 습지 등 자연 관광자원 39개소가 선정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4개소, 강원권 10개소, 충청권 13개소, 전라권 17개소, 경상권 28개소, 제주권 6개소로 지역 간 고른 분포를 보였다.

■ 두근두근 새내기 '한국관광 100선' 서울숲, 창원 여좌천,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등 33개소 선정

□ 이번에 처음 '한국관광 100선'으로 선정된 관광지는 총 33개소이다.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서울숲, 흐드러진 벚꽃이 매력적인 창원 여좌천 등 지역의 자연 명소뿐 아니라 산과 호수를 가로지르는 춘천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역사의 흔적을 따라 걷는 익산 왕궁리유적, 야경이 아름다운 통영 디피랑 등 주요 도시의 문화관광 명소도 첫 진입에 성공했다.

■ 서울 5대 고궁, 제주올레길, 전주 한옥마을, 경주 불국사·석굴암 등 오래, 자주 볼수록 아름다운 14개소 6회 연속 선정

□ 한국의 살아있는 역사와 전통을 함축한 서울 5대 고궁,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며 걷는 제주올레길을 비롯해 전주 한옥마을, 경주 불국사·석굴암 등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관광지 14개소는 6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명예를 얻었다.

■ 전문가 심사와 거대자료 분석으로 대표 관광지로서 매력과 성장 가능성 평가

□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은 ▲ '2021~2022 한국관광 100선', ▲ 지자체 추천 관광지, ▲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굴한 후보지 235개소를 대상으로 1차 서면 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최종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관광학계와 여행업계 관계자, 여행기자·작가 등 관광 분야 전문가들이 심사에 참여했으며, 이동통신

사, 길도우미(내비게이션), 누리소통망(SNS) 거대자료를 선정 평가에 활용했다.

■ 국내외 관광객 대상 공세적인 홍보마케팅 추진

-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을 대상으로 공세적인 마케팅을 지원해 전 세계에 ‘관광매력 국가’ 한국을 각인시킬 계획이다. 특히 선정지 일부를 한국관광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 ‘트래블 헌터-케이(K)\*’에 구현해 전 세계 청년(MZ)세대가 온라인에서 한국의 자연과 문화자원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체부가 개최하는 ‘내 나라 여행박람회’에서도 ‘한국관광 100선’ 홍보관을 운영하고 ‘한국관광 100선’ 시범 여행 체험행사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매체(방송, 누리소통망 등)로 홍보영상을 송출해 한국 관광의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파할 계획이다.

\* ‘트래블 헌터-케이’: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공간에 주요 한국 관광지를 게임형 콘텐츠로 구현, 한국 여행권, 여행 기념품과 같은 콘텐츠로 실제 한국 관광을 유도

- 또한 국내외 여행자가 언제 어디서든 ‘한국관광 100선’에 대한 정보를 얻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전국 관광안내소, 교통거점[공항, 고속철도KTX]에 ‘한국관광 100선’ 지도를 비치하고, 관광 정보 제공 누리집인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을 통해 100선 선정지의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관광 100선’ 정보는 국문 외에도 영어, 일어, 중어(간체자, 번체자) 등 외국어로도 번역해 관광공사 해외지사가 참가하는 각종 박람회, 관광 행사 등에서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관광 100선’은 한국문화(케이컬처)를 살펴볼 수 있는 관광 명소부터 자연과 어우러지는 관광지까지 매력적인 한국을 볼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이라며, “전 세계인들에게 ‘가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나라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도록 ‘한국관광 100선’을 알려 지역과 함께 한국 관광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방문의 해 계기, 정부·지자체·관광업계 모두 외국인 손님맞이 준비한다

- 문체부 제2차관, '관광업계 상품개발 상담회' 찾아 지자체·관광업체·여행사 등 280여 곳과 소통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오창희)와 함께 12월 13일(화), 롯데호텔 서울에서 '관광업계 상품개발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앞두고 본격적인 외국인 관광객맞이를 준비하기 위해 관광업계의 인적교류와 생태계 복원을 지원한다.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은 현장을 찾아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 신규 관광상품 개발과 운영 관련 상담 진행, '작은 채용박람회'도 개최

□ 특히 이번 상담회는 지자체를 비롯해 숙박업과 면세점, 유원시설, 공연관광, 크루즈, 지역관광재단 등 관광업체 80여 곳과 여행사 200여 곳이 참가하는, 코로나 이후 관광분야 최대 규모의 사업교류 행사로 마련됐다. 참가 업체들은 새로운 관광콘텐츠 정보를 수집하고,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기 위한 홍보와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관광업계의 구인난을 고려해 여행사와 구직자 간 '작은 채용박람회'도 개최한다.

□ 조용만 차관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외국인의 한국 관광 수요 회복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한국문화(케이컬처)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선보이는 이번 행사가 계기가 되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의 협력체제도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044-203-2829) | 게시일 : 2022.12.13.)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케이컬처)로 도약하는 관광매력국가에 항공업계도 함께

- 문체부·국토부 공동 주관으로 '2022 관광-항공 협력 포럼' 개최, 온라인 생중계 병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와 함께 12월 13일(화) 오후 1시 30분 롯데호텔 서울에서 '2022 관광-항공 협력 포럼'을 열어 한국문화(케이컬처)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한다.

\* 유튜브 채널: 제5회 관광-항공 협력 포럼(<https://youtu.be/32dzelnR6OM>)

□ 문체부와 국토부는 2018년부터 매년 관광-항공 분야를 연계한 공동 정책을 발굴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해왔다. 국제관광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올해는 특히 그간 부쩍 성장한 한국문화(케이컬처) 열기가 외국인 관광객 수요 회복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광-항공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한국문화(케이컬처)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역 인구감소 대응 협력방안 등 논의

□ 1부에서는 '한국문화(케이컬처)를 활용한 지역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동덕여대 글로벌마이스(MICE)학과 허준 교수, 에스비에스(SBS)미디어넷 이상수 방송사업본부장, 티웨이항공 박성섭 상무가 발표한다.

□ 2부에서는 '지역 인구감소 대응의 또 다른 출발점으로서 관광과 항공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한국관광공사 정선희 관광컨설팅팀장, 일본 아오모리현청 히가시 나오키(Higashi Naoki) 기획정책부장, 관광벤처기업 '누아' 서덕진 대표가 발표한다.

□ 발표 이후에는 한양대 관광학부 이훈 교수와 항공대 경영학과 윤문길 교수가 주제별로 진행을 맡은 가운데 정부와 학계, 관광·항공업계 관계자들이 관광·항공 산업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토론하고 질의응답을 한다.

□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귀담아듣고, 한국문화(케이컬처)를 융합한 관광콘텐츠를 확충해 관광·항공업계의 도약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부 정책 담당자는 “국제 항공노선의 다양화와 운항 규모 확대 등 항공·관광산업이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라며 “항공·관광업계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044-203-2829) | 게시일 : 2022.12.13.)

##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 ‘한국문화(케이-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 관광에 한국문화(케이-컬처)의 매력을 더한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3-’27)’ 발표
- 코로나 이후 관광업계 조기회복 위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

- 정부는 12월 12일(월) 오후 2시 30분, 서울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관광 관련 8개 중앙 부처 장관, 관광 유관 기관 및 전문가, 민간 기업인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 ▲ 국무총리 모두발언,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의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한국문화(케이-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발표, ▲ 민간의 사례 발표, ▲ 참가자 발언 및 관계부처 답변 등을 순서로 진행했다.

###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발표 주요 내용】

- 한국문화(케이-컬처) 매력을 무기로, 2023년을 관광대국의 원년으로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021년 한 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1,750만 명 대비 6% 수준인 96만 명으로 급감하는 등 한국 관광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제 국제관광시장은 회복 양상으로 전환돼 전 세계는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경쟁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을 주도하고, 형클어진 관광산업 생태계를 재정비하며, 국내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한국문화(케이-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실현을 위한 관광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 한국문화(케이-컬처)와 관광의 매력적 융합, ▲ 공세적 전략을 통한 유럽·미국 등 신규시장 개척, ▲ 민관협력·협업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기업과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는 관광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한국(케이) 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 박보균 장관은 “‘한국문화(케이-컬처)’라는 한국 관광의 대체 불가능한 매력을 무기로 ‘23년을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 ‘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 3,000만 명, 관광 수입 3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 ■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수요 선점을 위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추진

- 한국문화(케이-컬처)에 대한 세계적 인지도와 호감도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해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수요를 조기 선점한다. 2023-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케이-컬처 이벤트 100선’ 및 민관 협력 한류 주요 행사\*와 연계해 365일 케이-컬처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 ▲ 케이팝 아이돌 출연 콘서트, ▲ 인천 케이팝(INK) 콘서트, 원아시아페스티벌,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행사

- ‘한국문화(케이-컬처)의 본국, 한국으로’라는 표어를 바탕으로 뉴욕, 도쿄를 비롯한 세계 50개 도시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2~3위 시장인 일본·대만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 본격 재개 특별 캠페인\*을 추진하고, 동남아 한류 충성팬 유치를 확대한다. 한국문화(케이-컬처)에 대한 관심이 급성장하고 있는 유럽과 미주 지역을 대상으로도 ‘한국음악(케이-뮤직)’, ‘한식(케이-푸드)’을 주제로 한 참여형 행사와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시장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 일본 현지 한류 20주년 기념 재방문 캠페인, 대만 온라인 여행사(OTA)공동 계절테마여행(봄꽃 등) 홍보 등

\*\* '21년 기준 전 세계 한류 팬: 1억 5,660만 명(116개국/한국국제교류재단)

### ■ 한국문화(케이-컬처)와 관광을 전략적으로 융합, 청와대는 한국관광 랜드마크화

- 예술·음식 등 케이-컬처와 관광을 매력적으로 융합해 명인·명사와의 만남, 고급 한식 체험 등 한국(케이) 관광만의 고급 콘텐츠 상품을 개발한다. 특히, 한국 프로골퍼들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골프선수·대회·아카데미 등과 연계한 특화 관광상품(원포인트 레슨, 공동티샷, 대회관람 및 체험 등)을 새롭게 확대·개발한다. 인천공항 내 개인 전용기(Private Jet) 전용 터미널 신설도 추진해 고급관광의 기반을 조성한다.
-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국문화(케이-컬처)와 관광의 융합으로 한국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고품격 관광콘텐츠를 확충한다. 새로운 한국의 관광 랜드마크로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복궁, 광화문, 북촌·서촌 지역에서 생산되는 매력과 경쟁력을 이야기 기(스토리텔링)로 엮어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 ▲ 문화예술테마(청와대 공연/전시+현대미술관+북촌·인사동 갤러리+세종문화회관), ▲ 자연생태테마(녹지원과 대정원+북악산 한양도성+남산), ▲ 역사전통테마(청와대 본관과 관저+북촌 한옥마을+고궁박물관+경복궁+통인시장)

### ■ 외국 관광객 입국부터 출국까지 획기적 서비스 개선

□ 관광객의 입국부터 여행 과정, 출국까지 여행 전반의 편의를 높인다. 현재 기업포상관 광과 수학여행단에 한정된 동남아국가의 단체전자비자를 일반단체까지 확대해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무안공항 입국 무비자 특례를 신설한다. ‘일괄 단체심사’ 도입, 다국어 지원 등 전자여행허가제와 관련한 관광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지방공항의 국제선도 증편한다.

□ 즉시환급 사후 면세점을 확대('22년 약 3,600개소 → '27년 4,600개소)하고 면세점 정보를 제공해 외국인에 대한 관광 쇼핑서비스도 개선한다.

■ ‘워케이션 비자’, ‘한국문화(케이-컬처) 연수비자’ 등 새로운 비자제도 도입

□ 장기체류형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비자제도를 마련한다. ‘워케이션\* 비자’(가칭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통해 전 세계 인재들이 자국의 고용 및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1~2년 이내 기간 동안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따라 한국(케이) 콘텐츠 교육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케이-컬처) 연수 비자’도 신설한다.

\* 일과 휴가 (WORK+VACATION)의 합성어로, 원격근무와 여행의 결합

## ②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하고 해외인력 채용 비자 확대

□ 형클어진 관광산업 생태계의 회복과 확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관광업계에 인력 공급을 촉진한다. 호텔업계에서 장기간 제기해 온 과도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유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 숙박시설 교통유발계수(100만 명 이상 규모 도시 기준): (4~5성 호텔, 콘도) 2.62 / (일반 숙박시설) 1.16

□ 최근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호텔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력 고용규제를 완화한다. 전문직 취업비자(E-7)를 통한 호텔별 외국인 채용인원을 현행 2명에서 5명까지 확대하고, 유학생(D-2)의 시간제 근무 가능시간 제한을 완화(학사대상 현행 주 10~25시간→30시간)한다.

□ 코로나19 발생으로 여행업 등 관광업계는 큰 피해를 입었다. 향후 유사한 재난·위기 시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업계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 공제사업 활성화 등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관광업계의 위기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휴지보함’에 가입하는 등 자체적인 위기 대응책을 강구하는 사업체에는 운영자금 융자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 '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 펀드 5천억 원 결성,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 10개소 구축

□ 미래 관광산업의 선도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 펀드 5천억원을 결성해 관광기업의 성장에 투자한다. 국내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를 시도에 구축('22년 8개소→'27년 14개소)하고, 해외 주요 도시에 관광기업지원센터('22년 1개소/싱가포르→'27년 10개소)를 확충해 세계적인(글로벌) 관광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 관광업계 디지털 전환을 위해 중소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활동 이용권(바우처) 지원을 확대('22년 147개 업체 →'27년까지 총 1,000개 업체)하고, 업종별 디지털 전환 수준과 기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모델을 구축한다.

#### ■ 의료관광 활성화 등 고부가가치 융합관광산업 육성

□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관광객 유치에 위해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자발급의 편의성\*을 높이고,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비대면 협진)제도를 활성화한다.

\* 우수유치기관을 통해 입국 시 편의제공사항: 비자 전자신청, 재정서류 생략 가능 및 동반가족 초청범위 확대(직계가족→사촌 이내)

□ 또한 코로나 이후 건강과 휴식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웰니스 관광\*' 시장을 육성한다. 의료 치료 후 스파·식단 등이 연계되는 '웰니스·의료 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23년 6개소 선정),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 선정('23년 이후 매년 1개소 선정)과 집중 홍보를 통해 한국을 세계적인 웰니스·의료 관광 목적지로 조성한다.

\*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운동(Fitness)의 합성어로 몸·마음의 치유·회복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

\* 웰니스관광 시장은 '25년까지 연평균 20.9%(2021, Global Wellness Institute) 성장 예상

□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현재 5개소에서 '27년 10개소까지 확대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외국관광객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의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문화·레저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된 특별한 회의시설(코리아 유니크 메뉴\*\*/'22년 39개소→'27년 50개소)을 발굴해 지역의 국제회의 유치경쟁력을 강화한다.

\* 국제회의의 복합지구 지정 시 ▲ 국제회의의 복합지구 시설·장비 개선, 복합지구 내 시설 간 연계성 강화, 복합지구 브랜딩 사업 등 지원(관광기금), ▲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 감면

\*\* 코리아 유니크 메뉴: 전문회의의 시설이 아닌 지역의 이색적 회의 장소(한국의 집, 남이섬 등)

### ③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내여행

#### ■ 국내여행을 촉진하는 '여행이음카드' 등 국민이 체감하는 국내여행 혜택제공

□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관광지, 관광상품 할인 등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여행 관

런 혜택을 집약적으로 제공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국내여행에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 가 적립되는 ‘여행이음카드’를 도입(’24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 캠핑관광, 반려동물 동반여행 등 새로운 여행모델 활성화

- 최근 증가하는 캠핑관광 수요에 대응하여 캠핑객이 선호하는 지역인 숲속, 바닷가 및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 캠핑장을 확대 조성\*한다. 전국 312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해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를 조성(’23년 2개소 → ’27년 10개소)하고 관광 정보를 제공(대한민국 구석구석/∼’27년, 5백 건)해 반려인을 위한 새로운 관광시장을 육성한다.

\* 공유수면법(바닷가), 도농교류법(농어촌체험휴양마을) 개정 등 추진

■ 관광약자 전문여행사 등 관광 약자 친화(프렌들리) 신(新)시장 육성

- 장애인·고령층 등 관광약자를 위해 계단, 경사로 등 관광시설을 개선하는 ‘열린 관광지’를 지속 확대(’22년 누적 112개소→’27년 누적 250개소)한다. 관광약자가 버스 등 이동수단부터 체험공간·식당·카페 등 관광·편의시설까지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여행연결망을 구축하고, 관광 약자 전문여행사를 키워 관광 약자에 친화적인 신(新)시장을 육성한다.

\* 열린관광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 관광 약자의 이동이 쉽고 편리한 여행지

④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 구현

■ 여행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 살아보기형 관광 등 지역 체류형 관광 육성

- 지역관광 수요와 체류기간이 증대되고, 체류 시기가 분산될 수 있는 ‘여행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 확산을 지원한다. 여행친화형 근무제 수요 기업과 지자체 연결(매칭), 워케이션 자원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지원한다.
- 현지인처럼 살아보기형 관광(생활관광), 야간관광 등 체류형 관광모델 개발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강화한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 지역 관광지·특산물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하고, ▲ 다양한 정부 부처의 지역정착지원 사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관광객이 지역을 재방문하고, 정주 인구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 지역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발급하여 관광지 입장, 특산물 구매 시 할인 혜택 제공(’22년 평창·옥천 시범사업 31,380명 발급, ’27년까지 누적 30개 대상지역 확대)

\*\* ▲ 농촌에서 살아보기, 농촌유학(농식품부), ▲ 청년마을만들기(행안부) 등에 관광객이 일부 참여해볼 수 있도록 지원(’24년)

■ 지역의 독보적 관광매력자원 개발을 위해 10년간 ‘한국(케이) 관광 휴양벨트’ 조성 추진



- 인구 소멸 위기의 지역을 관광으로 회생하기 위해, 지역의 독보적 매력을 특화해 나간다. 영호남을 아우르는 5개 광역지자체\*, 40개 기초지자체에 숨겨진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예술섬, 플로팅공연장 등 예술과 첨단기술이 융합하는 관광콘텐츠를 마련하여 ‘한국(케이) 관광 휴양벨트’를 구축(‘24~’33년)함으로써 찾아가고 싶은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한다.

\*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 대상 추진(’23년 개발계획 수립)

- 고유의 자연·생태계·문화 등 관광콘텐츠로서 매력을 가진 섬을 유관 부처가 입체적으로 협업\*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섬 5개소를 대상으로 4년간 약 500억 원을 투입해 숙박시설 확충, 마을경관 개선을 지원하고 ‘가고 싶은 한국(케이) 관광 섬’으로 육성한다.

\* ▲ (문체부) 관광 편의시설 개선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 (해수부) 선착장 등 여객선 접안시설, 대합실·화장실 등 여객 편의시설 개선, ▲ (행안부) 섬 정주환경 개선 등

####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 개최】

- 한편 이날 국가관광전략회의 시작에 앞서 개최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윤영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겸 한국방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주한 외국인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 한신자 이즈피엠피 대표, 문체부 최수지 청년보좌역 등 관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통해 우리 관광산업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도약하기를 기원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유구한 문화유산에 케이팝, 영화 등 한류를 더해 그 어느 때보다 더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가고 싶은 대한민국’, ‘경험하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을 당부했다.



## [해양수산부] 어촌관광 성과확산의 장 '제15회 어촌마을 전진대회' 개최

- 12.15.~16. 경남 거제에서 성공사례 발표 및 성과 공유, 시상식 등 진행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은 12월 15일(목)부터 16일(금)까지 경상남도 거제시 소노감 거제에서 '제15회 어촌마을 전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어촌마을 전진대회'는 어촌주민이 직접 어촌체험휴양마을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더불어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어촌정책 성과와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다.
  - 올해 전진대회는 전국 124개 어촌체험휴양마을 어촌계장과 사무장, 바다해설사, 정부·지자체 담당자 등 어촌관광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하며, △어촌정책 우수사례 시상, △어촌체험휴양마을 성공사례 발표, △어촌관광 전문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 먼저 '어촌정책 우수사례 시상'에서는 '22년 일등어촌으로 선정된 경남 남해 이어마을을 비롯한 4개 마을에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또한, 현장에서 어촌의 매력을 관광객에게 알린 바다해설사 2명과 어촌체험휴양마을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사무장 2명,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제시로 어촌관광 발전에 기여한 청년과 전문가 등 민간부문 3명에 대한 시상도 이뤄진다.
  - 이어서, '어촌체험휴양마을 성공사례 발표'에서는 우수마을 운영성과와 어촌체험휴양마을 내 특화시설 조성 추진사례, 도어교류 우수사례 등 어촌관광 관계자의 관심이 높은 주요 성과를 공유하며 어촌관광의 활력을 도모한다.
  - 아울러, 행사에서는 올해 9월 제12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거제 숭어 망쟁이 들망어업'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되며, 어촌관광 발전을 위한 관계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 \*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유·무형의 어업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어업유산으로 2015년부터 지정·관리
- 김원중 어촌어항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불황 등 힘든 시기임에도 어촌 발전을 위해 힘 내준 마을 운영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 말씀드리며, 이와 같은 우수사례가 계속해서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공과(044-200-5651) | 게시일 : 2022.12.14.)

## [부산광역시] 셰프 에드워드권, 부산 미식관광 홍보대사로 위촉

- 12.15. 15:30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미식관광 홍보대사로 유명 셰프 에드워드 권 위촉
- LAB24 부산 이전, 라리스트 선정, 부산시 미식관광도시 조성 전략 회의 참석 등 그간 부산 미식관광 활성화 위해 노력해와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5일) 오후 3시 3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셰프 에드워드 권을 부산시 미식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 셰프 에드워드 권은 지난 1월 본인이 운영하는 ‘LAB24 바이 쿠무다’를 서울에서 부산 송정으로 이전 개업했다. ‘LAB24 바이 쿠무다’는 부산 소재 레스토랑으로는 유일하게 세계적 미식가이드 ‘라리스트 2023(LA LISTE 2023)’에서 세계 최고 1,000대 레스토랑에 선정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다.

□ 또한 그는 지난 9월 부산시 「글로벌 미식관광도시 부산」 조성 전략 회의에 참석하여 미식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등 부산의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 이번 홍보대사 위촉에 따라, 부산 미식관광 홍보활동과 미식 관련 정책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다.

□ 박형준 부산시장은 “셰프 에드워드 권씨를 부산 미식관광 홍보대사로 모시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부산이 국제적인 미식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실 거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부산시는 지난 9월 「글로벌 미식관광도시 부산」 조성 전략을 발표하며, 미식 관련 콘텐츠 발굴 및 홍보·마케팅 사업 추진 등 미식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서울 관광을 빛낸 주인공들 한자리에... '2022 서울관광인의 날' 개최

- 서울 관광에 이바지한 관광인 12명(개인 9, 단체 3)에게 '2022 서울관광대상' 시상
- 12일(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2022 서울관광인의 날」 행사
- 1부 '서울관광발전포럼', 2부 '서울관광대상 시상식'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 서울시는 오는 12일(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22 서울관광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관광업계 위기 극복과 서울관광 발전에 기여한 숨은 일꾼 12명(개인 9, 단체 3)에게 '2022 서울관광대상'을 수여한다.

○ 2019년 시작하여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서울관광대상'은 서울이 세계적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한 관광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제정되었다.

○ 이번 '서울관광의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관광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3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2022 서울관광대상은 관광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서 추천받은 총 37명의 후보자 중 공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 12명을 선정하였다.

○ 심사는 ▶서울관광발전 기여도, ▶사회적 기여도, ▶지속가능한 관광 인프라 형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다양한 업종의 수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힘썼다.

□ 이번 '서울관광대상' 수상자는 여행업·숙박업·요식업 등의 관광업계, 정보 기술(IT) 및 콘텐츠 업계, 학교 등 폭넓은 영역에 걸쳐 서울관광발전에 공헌한 역군들을 선정하였다.

○ 백석남 SK네트웍스(주) 위커힐호텔 총주방장은 30년 이상의 경력으로 각종 국내·외 VIP 및 해외 정상 만찬 행사 참여, 한식 HMR 상품 개발 등을 통해 한식 세계화에 이바지하였다.

○ 이성곤 위크컴퍼니 대표는 미식 서울 브랜딩을 위한 '테이스티오브 서울' 및 서울의 프리미엄 관광 육성을 위한 '마이서울인사이드'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서울 미식 관광의 길라잡이로 활약했다. 또한 2020년부터 3년 동안 '서울미식주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기획 및 수행하였다.

○ 포시즌스 호텔 서울은 해외 프리미엄 커뮤니티 중 하나인 'Connections Luxury Seoul'에 참여해 국내외 관광업계 구매자(바이어)와 판매자(셀러)들에게 특별한 연회와 만찬을 제공하여 서울의 고급(럭셔리) 관광을 세계에 알리는 데에 공헌하였다.

○ 글로벌리어(주)는 인공지능 기반 여행 추천 및 일정 최적화 기술을 고도화해 여행의

가치를 높이고, 국내 최초 글로벌 항공업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하여 해외 여러 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 기반 서울 관광 새싹기업의 위상을 높이였다.

- 12일에 개최되는 「2022 서울관광인의 날」(서울특별시 주최, 서울관광재단·서울특별시 관광협회 주관)에는 ‘2022 서울관광대상 시상식’ 외에 서울 관광발전을 모색하는 ‘서울관광발전포럼’이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된다.
- ‘서울관광발전포럼’(서울관광재단 주관)은 “서울관광의 질적 전환,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등을 진행하며, 코로나 이후 시대의 서울관광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을 모색한다.
-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관광의 미래를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는 관광인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관광업계가 조속히 회복하여 서울이 고품격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나도록 서울시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02-2133-2819) | 게시일 : 2022.12.12.)